

# 50년을 하루한끼 · 묵언 · 장좌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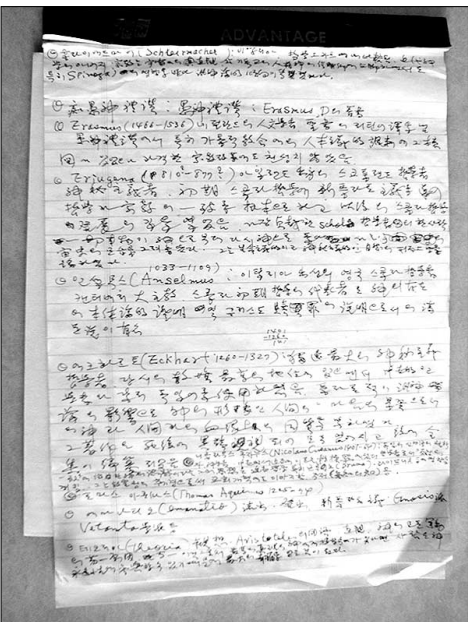
## 열반계

此世世間(차세타세간) 이 세상 저 세상  
 去來不相關(거래불상관) 오고감을 상관치 않으나  
 蒙恩大千界(몽은대전계) 은혜 입은 것이 대천계만큼 큰데  
 報恩恨細細(보은한세간)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 할 뿐이네

“부처님 법이 제일 쉽지요.”  
 우리시대의 대표적 선승으로 불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정화스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본래사리요, 가장 쉬운 공부”라고 늘 강조하던 정화스님이 세속의 육신을 벗었다. 출가 후 50년간 늘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한 치의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해 온 스님은 자신을 낮추고 계율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평소 “결립이 없애 하면서 짓는 파계는 무애행(無碍行)이 아니며, 계행을 지키고도 결립이 없는 것이 바로 무애행”이라고 강조했다.  
 은사인 금타스님의 가르침을 좇아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늘고 50년간 묵언과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해

까지도 직접 마루바닥을 걸레질하기도 했다. 평생을 지나며 수행도반으로 삼아 온 염주를 장학기금마련 자선바자회에 내놓은 적도 있다.  
 스님은 한 가지 수행법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근기에 맞는 수행법으로 수행할 것을 늘 강조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열불선’을 주창하며 복잡한 수행법만을 고집하는 수행풍토를 경계했다.  
 몇 해 전 ‘일일일식(一日一食)’으로 인해 기력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수행력으로 이겨내며 태안사에서부터 진행한 월 1회 정기법회를 주관했다. 최근까지 전국각지에서 스님을 찾는 법회에 직접 나서며 대중교화에도 앞장섰다. 또 1995년부터 3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캐벌과 팜

## 12일 원적, 청화 스님 수행 면모



◇청화 스님의 지난 3월 모습. 아래는 서양 철학자들의 이름과 사상을 정리한 노트.

## 수행자 본분 업무가 원칙... 佛法 가장 쉬워 손수 빨래, 한겨울에도 찬물 목욕후 정진

으면서도 “생활이 돼서 그런지 오히려 장좌불와가 편하다”고 말할 만큼 수행과 계율에 철저했다.  
 스님은 출가 후 단 한차례도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지리산 상무주암, 백장암, 상원암 등 20여 곳이 넘는 암자와 토굴을 옮겨 다니며 수행에만 몰두했다. 끼니를 직접 만들어 먹고 의복 빨래도 손수 하면서 한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해가며 정진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해 증상을 교화하지 못했다며 언제나 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님을 지켜본 불자들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곤 했다.  
 찾아온 신도들에게 자신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내주는가 하면, 얼마 전

스프링스에 삼보사와 금강선원을 세우는 등 해외포교에도 힘써왔다.  
 정화스님은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정신적 귀의처이기도 했다. 주식회사 부영 등 상당수 기업체들이 스님에게 자문을 구했었고, 전두환씨 등 정치인들이 스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스님은 보름 전쯤 상좌들과 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금생에는 세연이 다 했다”며 입적을 예견했다고 한다. 13일 공개된 스님의 유품은 평소의 검소함을 그대로 보여주듯 주장자와 가사, 안경, 벼루, 노트 등 10여 점이 전부였다. 특히, 노트에는 서양 철학자들의 이름과 중심사상이 빼곡히 정리돼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케 했다.  
 이준엽 · 한명우 기자

# 사찰문화재 보수예산 지자체 이양 움직임 조계종, “현실무시” 예의 주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위원회가 전통사찰 주요시설물의 보수정비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조계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이양 불가’ 견해가 우세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안도할 수 없다며, 이양의 불합리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존 예산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사실상 ‘보존 불가’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는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편성돼 왔으며 이 예산(국고)이 지방자치단체로 분배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사찰 자부담이 합쳐져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 예산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국고지원은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지자체 예산과 사찰 자부담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불교계는 지

자체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 오게 되고,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조계종이 ‘이양’을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는 문화재 업무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수준은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 보수 사업을 문화정책이 아닌 ‘특정 종교와 종파에 대한 특혜’로 왜곡할 우려도 크다. 또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른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도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의 전통사찰은 ‘방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화재 보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불교계의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할 표하고 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국고지원 안돼 문화재 보존 불능”

# 불교TV, 사옥문제로 난항 거듭

불교TV가 사옥 이전 등의 문제와 관련,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 47회 불교TV 이사회에서는 사옥이전과 대표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논의됐지만,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불교TV의 서울 봉천동 사옥은 현재 건물주(김용희)에 의해 90억원 상당의 매물로 나온 상태. 이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불교TV도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 지난 10월 열렸던 제 45회 이사회에서 서교동 구 다솜방송 건물 매입을 위한 기제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이사회에서는 불교TV의 부채로 인해 사실상 건물 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렵고, 외부감사인 손기원 씨의 이사회 참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옥 매입이 잠정 보류됐다.  
 이와 관련, 회사 측과 노조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회사 측은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관리비와 수천만원대의 임대료를 고려한다면 이번 기회에 불교TV의 사옥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

면, 노조 측은 “현재 사옥매입 문제는 경영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옥이전 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도 불분명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 추천의 건 또한 정관상 이사회에서 ‘이사후보자의 주석 증자 결의’가 이뤄져야 함에 따라, 다음 이사회로 연기됐다. 새로운 이사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태성바인텍 대표이사인 김재복 씨(50)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의회 인체분과위원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 후 열릴 예정이었던 ‘사단법인 불교TV 무상사 받기인 대회’는 참석자 부족으로 종료됐다. 또 지난 5월에 개원했던 불교TV 문화원은 재정난에 따라 10월 31일자로 문을 닫고,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불교TV 운영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현사옥 건물주 90억 상당 매물로 내놔 자금 확보 어려운데다 노사 의견 달라

##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 제 7대 총무원장 덕산당 창법 종사 취임대법회



계수합장하옵고  
 무량광명이 걸림없이 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불과 빛이 둘이 아니며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가고 옴도 본래 없지만  
 본종 제 7대 총무원장 덕산당 창법 종사 취임 법회를 교계 원로 대덕스님을 모신 가운데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신 중 바쁘시더라도 부디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일시 : 불기 2547년 11월 25일 화요일 (음력 11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 지장암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 ☎ (041)734-5377 ~ 8

- 중 명 : 금암대종사, 정각대종사, 혜우대종사, 혜안대종사, 벽송대종사
- 고 문 : 법선, 탄공, 혜명, 영암, 백운, 송정, 혜능, 월산
- 자문위원 : 혜봉, 허주, 승도, 법전, 명진, 회광, 근원, 월운, 도승, 성학, 창교, 도명, 도원, 성타, 원봉, 승덕
- 봉행위원장 : 고산
- 집행위원장 : 보명
- 집행위원 : 도명, 지엄, 해송, 도혜, 우호, 현오, 자명, 금륜, 선문, 삼해, 지광, 지현, 법일, 도일
- 봉행위원 : 일정, 영공, 법성, 혜청, 성진, 성린, 법정, 혜천, 보덕, 혜덕, 선덕, 월산, 도담, 일광, 보광, 도진, 담연, 지담, 광진, 도원, 의정, 월파, 향덕, 홍구, 혜능, 무등, 지각, 무진, 혜명, 수덕, 법장, 심진, 영봉, 청호, 벽담, 성문, 도인, 흥인, 보선, 자오, 성오, 무학, 자오, 지오, 혜일, 성진, 지광, 혜문, 혜천, 보해, 명안, 혜진, 법흥, 봉안, 무애, 도광, 혜각, 법상, 능허, 월운, 법지, 법해, 원일, 원정, 법담, 선해, 법성, 혜성, 지월, 도은, 심연, 수현, 성초, 법안, 정오, 서광, 해월, 정원, 혜진, 법정, 덕명, 경업, 현장, 월명, 월야, 해송, 영석, 법광, 혜인, 덕운, 상원, 진중, 탄공, 명관, 벽파, 만중, 정덕, 자성, 선종, 법정, 지호, 혜수, 대연, 해송, 오현, 혜인, 성우, 금허, 도명, 정하, 만성, 혜청, 천인, 도은, 혜명, 연오, 도신, 무애, 보명, 도행, 름각, 고원, 진원, 진허, 삼월, 명오, 법현, 보성, 광명, 자은, 지우, 법성, 정원, 지운, 형관, 용운, 진오, 성원, 지월, 명오, 선걸, 법원, 선광, 광운, 지원, 선대, 도림, 의선, 만중, 지광, 묘성, 정원, 보인, 지현, 수령, 정일, 수만, 수정, 현진, 지명, 혜산, 성후, 진성, 자성, 대원, 도성, 도일, 해일, 각원, 진중, 유각, 명각, 도공, 지명, 법정, 삼각, 승일, 각일, 회일, 도은, 도명, 일원, 진원, 혜덕, 상정, 진여, 도원, 지광, 진원, 도경, 혜명, 관음행, 대덕화, 법성, 법현, 혜린, 자비행, 미타원, 보화, 보현행, 진각화, 연화심, 양연옥, 대지화, 무량화, 세안심, 월진, 묘화, 석암, 문수행, 대광, 불법화, 심봉화, 묘법, 여현, 연화, 보광원, 대덕화, 보광심, 관음행, 대덕화, 지현 (무순)

불기 2547년 11월 18일

##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제 7대 총무원장 취임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고산 합장